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한 교수 체포

베네수엘라 경찰이 공개한 황당한 사진 한 장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베네수엘라 경찰은 대학교수 페르난도 안토니오 페레르를 체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납치 협박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특수부대 문양을 배경으로 페레르가 수갑을 찬 채 뒤 돌아있으며 그의 앞에 있는 테이블에는 스마트폰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보통 용의자를 검거한 뒤 경찰이 공개하는 사진을 보면 테이블엔 총기나 마약 등 증거물이 놓인다. 경찰은 페레르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로 압수한 스마트폰을 세워놓은 것이다.

페레르가 받고 있는 혐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민에게 (정부를 향한) 증오심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건 페레르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페레르는 “차베스 추종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다”며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이 휘발유가 떨어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어찌느냐?”고 물었다. 식료품과



휘발유가 부족해 국민이 겪고 있는 최악의 고통을 지적한 질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식료품 품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굶주린 저소득층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휘발유 대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휘발유가 없어 앰블런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주유소엔 새벽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긴 줄을 늘여 서고 있다.

페레르는 페이스북에 공공서비스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세수를 하나요?”라고 정부에 공개 질문했다. 수도와 전기 등 공공서비스도 베네수엘라에선 정상 공급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곳곳에선 밤마다 3~4시간씩 전기가 끊기고, 1주일 넘게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독재정권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공개한 사진 속 핸드폰에 특히 주목했다. 독재정권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총기류가 아니라 바로 핸드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에 출몰한 기러기 가족 호위하는 경찰들



차도에 출몰한 기러기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경찰관들이 호위하는 모습이 SNS상에 공개돼 화제다.

지난 28일 미국 오리건주 비버턴을 지나는 26번 고속도로에서도 기러기 한 쌍이 새끼 5마리를 데리고 갓길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기러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기러기 가족이 걷고 있는 갓길의 바로 옆 차선을 통제하며 이들을 호위(?)했다. 경찰은 자신들이 호위한 기러기 가족이 무사히 물가로 들어간 모습도 카메라에 담아 공유하며 기러기 가족 호위 임무를 무사히 마쳤음을 알렸다.

같은 날 잉글랜드 햄프셔주 혼딘시의 한 2차선 도로도 갓태어난 새끼 여섯 마리를 대동한 기러기 한 쌍이 출몰했다. 그러자 이들 기러기의 안전을 위해 경찰차 한 대와 경찰오토바이 한 대가 각각 한 차선씩 차지하며 기러기 뒤를 따르며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 모습은 리라는 이름의 다른 한 경찰관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공유했다.



영상은 8초로 극히 짧지만, 이들 기러기가 경찰들 덕분에 도로 위를 여유롭게 걷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들 뒤로는 트럭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거의 정차한 듯 서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영상 속 기러기 부부가 새끼들을 데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도로 위에 머물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배달 주문 생일 케이크 주인공은 배달원 본인

코로나19 여파로 각 업체는 배달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배달원들은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한 배달원이 최근 뜻밖의 생일케이크를 받고 눈물을 쏟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중국 CG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배달원은 케이크 배달 주문을 받고 빵집에 들렀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다. 배달 받는 사람이 다른 아닌 배달원 본인으로 지정돼 있다는 거였다.

청년은 빵집 주인에게 케이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신이 맞는지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빵집 주인은 누군가 배달원을 위해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CGTN은 평소 그가 성실히 일하는 것을 눈여겨본 어느 고객이 이날이 배달원의 생일인 걸 알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영수증에는 “상하지 않도록 잊지 말고 되도록 빨리 먹으라!”는 주문자의 당부도 함께 적혀 있었다.

케이크를 받은 배달원은 건물 밖으로 나가 계단에 홀로 걸터앉았다. 킁킁한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는 촛불을 불어 끈 그는 케이크를 한입 떠 먹은 뒤 흐르는 눈물을 웃소매로 훔쳤다.

CGTN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의료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약을 배달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라면서 “배달원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가나 세무보험
GANA TAX & INSURANCE

실업수당 신청 • 긴급재난용자 신청 • PPP(금료보호 프로그램) 신청

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리는 가나 세무 & 보험
보험고객은 세금수수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세금보고마감 3개월 연장 : 7월 15일까지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beachgana@gmail.com

O : 714.827.0707
C :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